우리를 가둔 것은 스스로의 말이었다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① 공염불과 도로아미타불: 실패의 은유가 돼 버린 수행의 언어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해 온 '공염불'과 '도로아미타불' 같은 표현은 불교 용어의 치열한 정진 과정을 지운 채 실패만 남기는 등 변질돼 왔다. 이 같은 낡은 언어를 살피고, 실패의 상징으로 굳어 버린 말들을 다시 생생한 지혜의 현장으로 되돌려야 한다. 사진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공염불이 된 공약', '십 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다. 정치인의 빈말에는 '공염불'이라는 딱지가 붙고, 공든 탑이 무너진 상황엔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추임새가 늘 따라다닌다. 이 단어들 속에는 '헛수고', '빈말', '실패'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꽉 들어차 있어서,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도 상황이 단번에 정리된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이 불러오는 세계는 꽤 묘하다. '염불'과 '아미타불'이 불교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수행이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염불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는 치열한 훈련이고, 아미타불은 괴로움 없는 세계인 극락으로 이끌어 주는 구원의 상징이다.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노력이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간곡함을 담고 있는 숭고한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어쩌다가 '도로'와 같은 허탈한 단어들과 어울려 다니며 '헛짓'의 대명사가 돼 버린 걸까?

'비어 있음'의 지혜, 어떻게 '실패의 낙인' 됐나

이 말이 이렇게 굳어진 데에는 '공(空)'을 잘못 읽어 온 대중의 오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는 '공'이라 하면 자꾸 '알맹이 없는 허탈함'이나 '실속 없는 무용함' 같은 느낌을 먼저 떠올린다. 마치 과자 봉지에 공기만 찬 느낌, 속 빈 공갈빵 같은 이미지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나'라는 틀에서 벗어난 걸림 없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공+염불'을 글자 그대로 풀면 '나를 지운, 대가 없는 최상의 염불'을 뜻해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대개 '입만 움직이는 헛된 염불'로 변질됐다. 즉, 불교의 깊은 의미가 일상어가 되면서 '노력해 봤자 결국 남는 게 없다'는 식의 허무한 결론으로 뒤틀린 것이다.

이러한 뒤틀림은 '도로아미타불' 설화에서 더 극적으로 표현된다. 설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한 스님이 십 년 동안 정진한다. 세속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신의 눈빛과 호흡 하나까지 단속하면서 그 십 년의 공력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스님의 앞에 유혹이 하나의 '사건'처럼 등장한다. 물에 빠진 여인의 비명이거나, 마음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몸짓 같은 것들이다. 스님은 직감한다. 지금이 마지막 고비임을. 그러나 머리가 '안 된다'고 경계하는 사이, 몸은 이미 본능을 향해 기운다. 손을 뻗는 찰나, 팽팽하게 당겨졌던 수행의 끈은 허망하게 끊어진다. 그 순간 스님은 망연한 얼굴로 중얼거린다. "아미타불이 도로 아미타불이 됐구나!" 마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린 탑이 마지막 돌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십 년 공부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스토리로 세상에 전한다.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옛이야기였을지 모르나, 사실 여기에는 매우 냉혹한 시선이 숨어 있다. 십 년을 공들였는데도, 마지막 한 번 잠시 흔들렸다고 모든 게 '0점'이 된다니. 그동안 쌓인 마음의 힘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이야기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관용구가 돼 버리는 순간, 수행은 '과정'이 아니라 '한 방, 도박'이 된다. 흔들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한 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시험이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본래 가르침은 결코 결과만 보고 사람을 재지 않는다. 〈법구경〉처럼 "낙숫물이 고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는 작은 노력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르친다. 설령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을지언정, 그가 십 년 동안 굴린 염주 알의 매끄러움과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올린 기도의 정성은 사라지지 않고 수행자의 삶 속에 남는다. 실수 한 번에 오랜 과정 전체를 지워 버리는 이 매정한 수식어는, 어쩌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붙인 속세의 심술궂은 꼬리표처럼 보이기도 한다.

숭고한 표현이 '헛짓'의 대명사 전락
대중 오해로 잘못 읽힌 결과 굳어져
불교 밀어내려 한 '언어의 정치' 작동
다른 종교에 없는 조롱 관용구 남아
체념 대신 왜곡된 표현 다시 살펴야

조선이 불교를 '웃음거리'로 만든 방식

이런 오해나 비정한 서사가 대중의 일상에 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불교를 역사의 주류에서 밀어내고자 했던 '언어의 정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 시대 유교 지배층은 불교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반박하기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선택했다. 바로 '조롱'이다. 비판은 상대를 마주 보게 하지만, 조롱은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게 만든다. 논리로 싸우면 반박할 기회라도 생기지만, 한 번 웃음이 붙으면, 그 대상은 진지한 대화 자리에서 금방 밀려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들만 봐도 그렇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염불에는 마음 없고 잿밥에만 마음 있다'와 같은 속담이 그것이다. 당시 양반들 역시 제 손으로 못 하는 일이 허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승려의 결연함의 상징인 '삭발'을 가져와 '무능'과 '한계'의 대명사로 삼는다. 신성한 종교적 계율을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딱한 처지로 바꿔치기해 버린 시선 속에는 당대 지배층의 은근한 비아냥과 조롱이 숨어 있다.

'잿밥' 역시 부처님께 올리는 귀한 정성이었으나 어느새 탐욕의 대명사가 돼 있었고, '염불'은 '입으로만 하는 쇼'가 돼 버렸다. 당대의 유학자, 관리, 도인, 선비는 놔두고 유독 불교 승려를 불러와 "저들은 원래 그렇다"는 듯한 공식으로 찍어 버리니, 불교 전체가 한 번에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집단'처럼 보일 수밖에.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봐봐, 한심하지?"라며 낄낄거리는 방식은 대중들에게 지배층의 편견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했다. 조선의 지배 권력은 불교를 비웃음의 영역에 가둠으로써, 불교가 가진 귀중한 사유와 가르침이 대중에게 닿는 길을 교묘하게 끊어 놓았다.

말은 밖보다 안에서 굳는다

이런 조롱의 방식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는 다른 종교와 대비해 볼 때 더욱 선명해진다. 누군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헛렐루야'나 '도로아멘'이라고 하지 않는다. 혹자는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짧아 관용구로 굳어질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겠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언어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대개 실패나 흔들림을 개인의 부족함으로 설명하지만, 유독 불교만은 '수행이라는 행위 전체'를 싸잡아 쓸모없는 중얼거림으로 몰아세운다. 지배 권력이 심어 둔 "결국 불교는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비웃음을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 대대손손 물려준 셈이다.

더 뼈아픈 지점은 이 표현들이 불교 내부에서 더 자주 쓰인다는 사실이다. 불자들조차 일상에서 "또 공염불이네", "에휴, 도로아미타불이지, 뭐"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쓴다. 불교 방송이나 신문, 법문 속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형식적인 수행을 경계하고 실천 없는 태도를 따끔하게 비판하기 위한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남는 건 결국 하나다. 불교 수행은 점점 '해봐야 소용없는 일'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금껏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말해 왔을까

이쯤에서 다시 묻게 된다. 불교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말 속에서 불교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 왔는지, 성불과 수행을 허망함이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체념으로 내뱉지 않았는지 말이다. 물론 불교는 수행의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을 "힘들지만 갈 수 있다" 말하는 것과 관용어를 통해 '헛짓거리'로 치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공염불'과 '도로아미타불' 같은 표현은 치열한 정진의 과정을 지워 버리고 결과 없는 실패만 남긴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각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다. 염불과 수행을 실패의 마침표로 찍는 언어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수행의 서사가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배 권력이 설계한 '조롱의 문법' 안에서 불교를 이해해 왔다. 이제 불교를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해 온 낡은 언어부터 살피고, 실패의 상징으로 굳어 버린 말들을 다시 생생한 지혜의 현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뜻풀이를 넘어 '마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다. 우리를 가둔 것이 스스로의 말이었다는 자각, 그 지점에서 불교의 진짜 풍경은 시작된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7일 출발~3월31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돌로미테 코르티나담페초와
오르티세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7월 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힐링코스입니다.
출발일 : 7월02일~7월10일 출발확정
▶ 동참금 : 800만원

우즈베키스탄 불교성지 순례 7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테르미즈의 불교사원 등 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6월12일(5박7일)
▶ 동참금 : 30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